

설승환 고난도 MINI 모의평가 국어 영역(문법) 제1회 정답/해설

11 ⑤ 12 ⑤ 13 ① 14 ⑤ 15 ④

11. ⑤

- ① ‘안팎’은 ‘안’과 ‘밖’이 결합하면서 ‘안팎’이 된 것이므로 어근의 형태 변화가 있고, 합성어가 되면서 ㉠에서 ‘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’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의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.
- ② ‘밤낮’은 ‘밤’과 ‘낮’이 결합하면서 ‘밤낮’이 된 것이므로 어근의 형태 변화가 없고, 합성어가 되면서 ㉠에서 ‘늘’이라는 새로운 뜻으로 쓰였으므로 의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.
- ③ ‘첫사랑’은 ‘첫’과 ‘사랑’이 결합하면서 ‘첫사랑’이 된 것이므로 어근의 형태 변화가 없고, 말 그대로 ‘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’이라는 뜻이므로 의미 변화도 없음을 알 수 있다.
- ④ ‘날짐승’은 용언 ‘날다’의 어간이자 어근인 ‘날-’과 ‘짐승’이 결합하면서 ‘날짐승’이 된 것이므로 어근의 형태 변화가 없고, 말 그대로 ‘날아다니는 짐승’이라는 뜻이므로 의미 변화도 없음을 알 수 있다.
- ⑤ ‘어제오늘’은 ‘어제’와 ‘오늘’이 결합하면서 ‘어제오늘’이 된 것이므로 어근의 형태 변화가 없고, 합성어가 되면서 ㉠에서 ‘머칠 동안’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의미 변화는 있음을 알 수 있다.

12. ⑤

- ①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를 이루면서 뒤 명사의 소리가 변할 때, 즉 뒤 명사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, 이때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그리고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. 2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뒤 명사의 첫소리가 거센소리이거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, ‘뒤’와 ‘뜰’이 합쳐진 ‘뒤뜰’은 그대로 ‘뒤뜰’로 표기해야 한다.
- ② ‘코’와 ‘날’이 결합하면 [콘날]로 발음되는데, 이는 [ㄴ]이 첨가된 것이지 [ㄴㄴ]이 첨가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. [ㄴ]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 ‘콧날’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.
- ③ 2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뒤 명사의 첫소리가 거센소리이거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, ‘뒤’와 ‘풀이’가 합쳐진 ‘뒤풀이’는 그대로 ‘뒤풀이’로 표기해야 한다.
- ④ 2문단에 의하면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로만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에만 표기해야 하므로 한자어 ‘전세(傳貰)’와 한자어 ‘방(房)’이 합쳐진 ‘전세방’은 그대로 ‘전세방’으로 표기해야 한다.
- ⑤ ‘노래’와 ‘말’이 결합하면 [노랜말]로 발음되는데, 이는 [ㄴ]이 첨가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. 앞말의 받침이 없으며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‘혼잣말’, ‘존댓말’과 같이 사이시옷을 넣어 ‘노랫말’로 표기해야 한다.

13. ①

- <보기 1>에 의하면 <보기 2>는 여러 개의 부정 범위가 생길 수 있다. 즉, ‘그’, ‘어제’, ‘철수’, ‘만나다’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<보기 2>는 아래의 네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.
- ‘그’를 부정할 경우
→ 어제 철수를 만난 사람은 ‘그’가 아니다. (②)
- ‘어제’를 부정할 경우
→ 그가 철수를 만난 때는 ‘어제’가 아니다. (③)
- ‘철수’를 부정할 경우
→ 그가 어제 만난 사람은 ‘철수’가 아니다. (④)
- ‘만나다’를 부정할 경우
→ 그가 어제 철수와 ‘대면’한 것은 아니다. (⑤)

그런데 ‘그는 어제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.’라는 문장에서 ‘그는 어제 철수와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다.’라는 의미가 도출되지는 않는다. 이 문장은, 그는 어제 철수를 만나서 어떠한 다른 행위를 더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‘그는 어제 철수와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다.’는 <보기 2>의 문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.

14. ⑤

‘값있는’은 [갑인는] → [가빈는] → [가빈는]의 과정을 거쳐 발음이 된다. [갑인는]에서 탈락 현상에 들어가는 자음군 단순화(ㄱ→ㄱ) 및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(ㄴ→ㄴ)이 적용된 후, ‘ㄱ’이 연음되면서 [가빈는]이 되었다. 그리고 [가빈는]에서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비음화(ㄴ→ㄴ)가 적용되었으므로, ‘값있는’은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를 거쳐 [가빈는]으로 발음된 것이다.

[오답풀이] ① ‘날날이’는 [난날이] → [난나치]의 과정을 거쳐 발음이 된다. [난날이]에서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(ㄷ→ㄷ)이 적용되었고, [난나치]에서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비음화(ㄷ→ㄷ) 및 구개음화(‘ㄷ’+‘ㅣ’=‘ㅈ’)가 적용되었으므로, ‘날날이’는 세 번의 교체를 거쳐 [난나치]로 발음된 것이다. ② ‘닭고서’는 [닥고서] → [닥꼬서]의 과정을 거쳐 발음이 된다. [닥고]에서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(ㄱ→ㄱ)이 적용되었고, [닥꼬]에서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된소리되기(ㄱ→ㄱ)가 적용되었으므로, ‘닭고서’는 두 번의 교체를 거쳐 [닥꼬서]로 발음되는 것이다. ③ ‘열여덟’은 [열너덜] → [열러덜]의 과정을 거쳐 발음이 된다. [열너덜]에서 탈락 현상에 들어가는 자음군 단순화(ㄹ→ㄹ)와 첨가 현상에 들어가는 ‘ㄴ’ 첨가가 적용되었고, [열러덜]에서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유음화(ㄴ→ㄹ)가 적용되었으므로, ‘열여덟’은 한 번의 탈락과 한 번의 첨가, 그리고 한 번의 교체를 거쳐 [열러덜]로 발음된 것이다. ④ ‘쌍지만’은 바로 [쌍치만]으로 발음되므로 한 번의 축약만 일어난다.

15. ④

㉠의 ‘부테 命訖사 舍利弗을 和尚이 드외오’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‘부처가 명하시어 사리불을 화상이 되게 하고’인데, ‘부테’는 ‘부터’에 주격 조사 ‘ㅣ’가 결합된 것이고, ‘和尚이’는 서술어 ‘되다/아니다’ 앞에 보격 조사 ‘이’가 결합된 것이다. ‘和尚이’에서 ‘이’는 주격 조사가 아니므로, ㉠의 ‘부테’와 ‘和尚이’를 통해 주격 조사의 형태가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‘이’ 또는 ‘ㅣ’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탐구할 수 없다.

[오답풀이] ① ㉠의 ‘거스디’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‘거스르지’인데, 중세 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현대 국어의 어미 ‘-지’가 ‘-디’로 나타났다. ② ㉠의 ‘주그니라’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‘죽었다’인데, 중세 국어 시기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서 현대 국어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‘-었-’의 형태가 중세 국어에서는 보이지 않았다. ③ ㉠의 ‘느믹’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‘남의’이고, ㉠의 ‘거부비’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‘거북의’인데, 이를 통해 체언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, 앞 체언이 양성 모음이면 ‘의’로(늬+의), 앞 체언이 음성 모음이면 ‘의’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(거븨+의). ⑤ ㉠의 ‘前生에 지손’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‘전생에 지은’인데, 체언 ‘죄’를 수식하고 있는 이 관형절은 ‘전생에 죄를 지었다’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목적어 ‘죄를’이 생략된 것이다. 현대 국어에서는 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‘-오-’가 존재하였다.

※ <보기 1>의 ㉠, 즉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관형절의 목적어로 쓰였음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‘-오-’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, 너무 지엽적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. 하지만 이 내용은 버젓이 <독서와 문법>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으며, 현대 국어에서 ‘관형절에서의 문장 성분 생략’은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주제이므로, 이번 기회에 <보기 1>의 ㉠을 잘 기억해 두자.